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측면몸돌과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 맥락에 대한 연구*

李 憲 宗 **

목 차

Ⅰ. 머리말
Ⅱ. 측면몸돌의 정의와 기술적 속성
Ⅲ. 우리나라 출토 측면몸돌과 그 성격
Ⅳ. 측면몸돌, 돌날몸돌 그리고 기술형태적 맥락
Ⅴ. 맺음말

< 요 약 >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문화기는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와 연관이 있다. 최근 고례리유적과 진그늘유적의 발견으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형돌날문화는 동북아시아의 25,000년전에 시작된 아시아적인 소형화개념(microlism)의 전형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석기문화가 통합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의 전역에 널리 퍼져있는 대표적인 문화기이다. 이러한 후기구석기시대의 일련의 유적들은 크게 돌날기법과 연관이 있으며,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 성형과 박리기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맥락적인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갈돌석기전통의 다층위유적 가운데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으로 보고된 유적과 절대연대 상 40,000-25,000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측면몸돌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와의 상관관계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몸돌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에 자주 출토되는 대표적인 몸돌 중 하나이다. 측면몸돌은 몸돌의 좁은 측면에서 많은 돌날을 떼어내고 재생을 하기에도 용이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석재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 전략적인 몸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측면몸돌은 돌날기법과 연관이 있으며 후기구석기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동북아시아에 정착해 가던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인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던 한반도에 점거하며 살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마다 적응 해 갈 수 있었을 것이며, 다양한 돌날몸돌을 다룰 때 측면몸돌을 제작하던 기술로 인한 적응력도 높여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이른 단계로 편년되는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에서 이러한 몸돌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후기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며 지역적인 적응의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주제어] 후기구석기시대, 측면몸돌, 돌날문화, 자갈돌석기전통, 기술적맥락

* 이 논문은 2003년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R01-2003-000-10592-0)
** 목포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접수일 : 2004. 4. 29, 심사일 : 2004. 5. 10, 심사완료일 : 2004. 5. 25)

Ⅰ. 머리말

우리나라 구석기연구에서 중요한 테제 중 하나는 후기구석기시대에 대한 정의, 편년, 문화성격 등 일반론적인 의미 뿐 아니라 후기구석기시대의 시작과 소위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와의 연계성과 그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는 일이다. 이 모든 작업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며 매우 논쟁적인 부분이다. 또한 자료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도 있게 마련이다.

최근 들어 필자가 '자갈돌석기전통의 후기구석기시대 계승성'에 대한 논의(이헌종 · 한창균 · Derevianko · 黃慰文 2003)를 진행하면서 일련의 석기군이 갖고 있는 특성이 계승되고 있다는 측면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서 더 나아가 각각의 개별적인 문화상 즉 개별적인 석기의 속성이 변화한다든지, 석기의 제작기법이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석기를 제작하기 이전의 석재의 변화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문화상의 변이 혹은 기존의 자갈돌석기전통에 어떤 기술적인 특성이 혼합되어 혼성성(hybridity)이 나타나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들은 이미 알려진 데로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를 보여주는 고례리유적과 진그늘유적 등이며, 돌날석기들이 세형돌날문화기의 유적들에 포함되어 나타나는 유적들 또한 상당히 많다. 이러한 돌날석기문화 역시 세형돌날문화기로 계승되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속성의 문제는 새로운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어느 정도 그 윤곽이 잡혀 나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미 필자가 언급한 것처럼 세형돌날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유적들 중에도 세형돌날몸돌과 함께 다양한 격지석기들이 함께 공존한다던지 세형돌날과 함께 자갈돌석기들이 공존한다던지 하는 석기문화의 다양성이 상존하고 있다(이헌종 1997a, 2002; 김주용 · 이헌종 · 양동윤 2002).

이러한 문화적인 다양성이 나타나는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기존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나타나는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들 중 적어도 동북아시아에서 어떠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왜 그러한 성격을 보이는지에 대한 여러 문화적인 차별성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후기구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유적들이라고 평가되는 유적은 돌날석기나 돌날몸돌을 포함하는 유적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돌날석기가 출토되어야 후기구석기시대로 보려는 일반론적 입장도 계속 상존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론적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돌날석기문화는 언제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기술적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보편적인 작업이라고 한다면 그와 더불어 그 석기문화의 기술적 계통성은 어떻게 나타나며 전개되는지에 대한 과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돌날석기문화에 해당되는 유적이 발굴된 이래 이 유적들과 서로 연결되는 동북아시아의 주변 유적들은 쉽게 확인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돌날석기가 출

토된 유적들이 발견되었다 하여도 이 석기들에 대한 문화적 계통성을 찾는 작업은 상당히 오랜 연구기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많은 돌날석기문화에 대한 의문점을 뒤로하고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초기와 중기 즉 절대연대상 45-25ka에 해당하는 유적들 혹은 후기구석기시대의 문화층으로 보고된 유적들과 늦은 단계에 이르기까지 후기구석기시대 초기의 석기문화를 이어가는 유적들 가운데 돌날몸돌의 한 사례인 측면몸돌이 발견되는 유적을 소개하고 이 유적들에서 출토되는 몸돌의 기술형태적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 몸돌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의 문화기인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와의 문화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Ⅱ. 측면몸돌의 정의와 기술적 속성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에서 잘 알려진 몸돌들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측면몸돌(**торцовый нуклеус**)이다. 이 몸돌은 후기구석기시대에 접어들어 다양하게 돌날기법이 분화하면서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응된 돌날떼기 기법 중 하나이다. 기술적으로 긴 타격면에 좁은 한쪽 가장자리(**торец**)를 작업면으로 활용하여 돌날을 떼어내는 특징을 갖고 있다[1]. 하지만 이 몸돌은 동북아시아에서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몸돌은 필자의 후기구석기시대 몸돌 분류에 의하면 단일타격면 단일작업면의 몸돌 가운데 A5(측면몸돌)에 해당한다(이헌종 1998). 후기구석기시대의 측면몸돌은 이미 언급한데로 긴 타격면에 좁은 쐐기형 작업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타격면 조성 여부와 작업면 상태 그리고 작업면의 활용면 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측면몸돌이 분류되고 있다. 작업면의 경우 초기에 전혀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한쪽 측면에 박리를 통해 1차생산물을 얻는 경우들이 많지만 점차 후대에 갈수록 실제로 하단부에 조정 타격을 통해 능선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초기의 측면몸돌의 기술적 속성은 세형몸돌의 성형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측면몸돌은 모든 몸돌의 기술적 맥락을 파악할 때 기술분화의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

1) 측면몸돌은 쐐기형 몸돌(wedge shaped core)을 연상하며 궁극적으로 세형몸돌의 형태를 바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이 몸돌의 경우 작업면이 쐐기형을 유지하지 않은 몸돌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측면몸돌을 쐐기형 몸돌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런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몸돌을 wedge shaped side faced core로 불리우기도 한다(Derevianko et al. 1998). 이 측면몸돌이 쐐기형몸돌의 기술적 측면을 갖고 있으나 쐐기형의 작업면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sub-wedge shaped core로 부르기로 하였다.

던 것처럼 다양한 분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단일타격면 두 작업면의 몸돌 및 두 타격면 두 작업면의 몸돌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몸돌은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특히 후기구석기시대로 진입한 이후 이 몸돌은 다른 돌날몸돌이 등장할 때 함께 나타난다. 지금까지 시베리아의 측면몸돌들을 검토해 보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개발된 몸돌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제약 속에 전략적으로 활용된 몸돌이라고 보여진다. 우선 르발루아 기법으로부터 발달된 북아시아의 돌날제작기법은 기존의 르발루아 기법의 잔재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으며 그러한 기반 하에 돌날을 떼어낸 것을 알 수 있다(Derevianko et al. 1998). 남부 시베리아의 알타이지역에서 중기-후기구석기시대의 과도기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유적은 까라-봄(Kara-Bom)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무스테리안기의 문화층들에서는 측면몸돌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45-40ka의 절대연대를 보여주는 후기구석기 5, 6 문화층에서는 여러 형태의 측면몸돌이 나타난다(그림 1). 한편 이러한 측면몸돌은 좁은 측면에 수직박리에 가까운 새로운 기술적 적응이 있어야 제작이 가능하다. 이 속성을 주목하여 측면몸돌은 측면 새기개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Petrin 1994)(그림 1:①).

이러한 측면몸돌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유용한 속성을 갖고 있다. 긴 타격면은 몸돌을 다루는 제작자에게 발로 몸돌을 고정하거나 손으로 고정할 때 매우 유용한 측면이 있다. 석재의 질이 좋아 손으로 쥐고 단순 박리를 통해서 쉽게 돌날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안정된 상황에서 원하는 1차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한편 돌날을 떼어내기 위해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는 실험적인 연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Inizan, Roche, Tixier 1992; Odell 2003; Hirth ed. 2004) 측면몸돌의 형태가 기능적으로 점차 보조기구에 고정시키기 위한 형태로 그 몸돌 성형의 방식도 점차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이헌종 1998).

보조도구에 고정시킨다는 인식 속에는 불량한 석재로부터 일정한 1차생산물을 얻겠다는 의도 뿐 아니라 경제적이며 전략적인 박리체계를 운영한다는 보다 계획된 개념이 들어있는 것이다. 즉 좁은 측면에 박리를 할 경우 기술적으로 두 가지 측면의 유리한 점이 있다. 첫째, 박리가 성공적이라면 버려지는 몸돌(wasted core)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1차생산물을 얻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양 측면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만일 박리에 실수가 있어 재생을 할 경우 좁은 측면이기 때문에 몸돌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재생하여 1차생산물을 계속 떼어낼 수 있다.

자바이칼 지역의 대표적인 후기구석기시대 이른 단계의 유적인 똘바가(Tolbaga)유적의 측면몸돌들은 보조도구 활용 가능성을 높혀 준다(그림 2:①~④). 이 유적에서는 소형 돌날몸돌과 함께 여러 측면몸돌들이 확인된다. 특히 하단부의 능선을 조정하여 몸돌을 성형한 쐐기형 측면몸돌도 함께 발굴되었다(그림 2:③·④).

전형적인 세형돌날문화기에 접어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유적들에서는 이미 쐐기형의 세형몸돌들이 주요 몸돌로 활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세형돌날 뿐 아니라 다양한 돌날석기를 제작하기 위한 돌날몸돌들도 함께 출토되고 있는데 기존의 돌날몸돌 보다 더 세형몸돌의 기술체계가 적용된 몸돌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타격면을 조성한다던지 하단부에 조정타격을 한다던지 하는 적극적인 성형기법이 적용된다. 좋은 석재가 풍부하지 않았던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여러 세형돌날문화기의 유적들 즉 셀렘자 유적군, 우스띠노브까유적군, 수보로보유적군, 말타유적, 부레뜨유적 등에서 이러한 측면몸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맥락을 고려해서 다른 여러 요소와 함께 후기구석기시대 이래로 계속된 측면몸돌로부터 세형몸돌이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다(Derevianko 1994).

Ⅲ. 우리나라 출토 측면몸돌과 그 성격

우리나라에서 몸돌에 대한 기술적 측면의 연구는 그 중요도에 비하여 그다지 폭넓게 연구되고있지 않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필자의 그 동안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에 대한 문화적인 계통성을 파악하기에 너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동일한 석기군에서의 다양한 문화적인 변이와 그 시기에 따라 유입되는 새로운 집단의 석기제작 기법들과의 다양한 기술적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양한 변이와 기술적 교류를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인 석기 즉 슴베찌르개와 같은 석기들의 기술형태적 변화과정을 통해 시공간적 의미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이헌종 2002). 하지만 이러한 석기보다 근원적인 기술적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몸돌 연구를 해야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갈돌석기전통이 후기구석기시대 늦은 단계에까지 연속되는 양상[2]이 보이지만 이 석기전통과 동일시기에 상존하는 돌날석기전통과 세형돌날문화와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근원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몸돌연구를 보다 정치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몸돌연구와 연관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다층위 유적군인 셀렘자

2) 최근 30,000년 이후의 절대연대를 제시하는 유적이 소개되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유적으로는 거장 정장리유적과 장동리 용동유적이다. 거창 정장리유적은 Ⅰ, Ⅱ, Ⅲ지구로 나누어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는데 모두 자갈돌석기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적에서는 AMS방식을 이용하여 4개의 연대측정치가 나왔다. Ⅰ지구에서는 25,700±150B.P.(SNU03-001), 28,700±500B.P. (SNU03-002)의 연대가, Ⅱ지구에서는 29,700±300B.P.(SNU03-003), 28,600±300B.P. (SNU03-004)의 연대가 제시되었다. 영산강 하류에 위치한 나주 동강면 장동리 용동유적은 다층위유적으로서 최근 제1문화층(최상층)의 토양을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교육연구공동기기원에서 AMS 측정한 결과 17,500±100B.P.가 나왔다.(김정빈박사와의 개인대화를 통해서)

(Selemdja)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을 통하여 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의 기술체계를 연구(이헌종 1998)하여 후기구석기시대의 다양한 몸돌에 대한 기술형태적 특성과 그 기술체계를 다루었고, 전곡리의 기술격지(이헌종 1997b)와 동북아시아의 기술격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이헌종 1999)를 시도하여 몸돌로부터 떼어진 기술적인 격지들과 재생과정에서 떼어진 격지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소장학자들의 몸돌에 대한 연구가 소개되었다. 그중 주목되는 연구는 금파리의 몸돌과 격지의 계측치를 통해 분석한 것(황소희 1999)와 임진-한탄강 지역의 불규칙한 몸돌을 분석한 연구(박성진 2000)가 있으며, 고례리 유적의 후기구석기시대의 돌날몸돌에 대한 연구(장용준 2001)가 있었다. 끝으로 죽내리유적 1문화층에서 붙는 석기들을 통해 석기제작 방법을 복원한 연구(최미노 2001)는 석기제작과정에서 구석기시대인들의 행동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논문이다.

전자의 두 유적은 주로 임진-한탄강유역의 몸돌들을 다룬 논문들로서 돌날몸돌이나 측면몸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다. 고례리 유적의 돌날몸돌에 대한 연구에서는 돌날을 떼어낸 몸돌을 모두 7형식으로 나누고 그중 F형을 측면이용 몸돌로 분류하였다(장용준 2001:44-45).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된 측면몸돌은 남한강유역에 대한 지표조사과정에서 병산리유적 주변에서 찾은 백색 석영으로 제작된 몸돌(최몽룡 외 1997)과 우산리유적에서 수습한 몸돌이었다(Lee H.J. 1998)(그림 5:④·⑤). 하지만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 가운데 측면몸돌이 주목된 경우는 없었다.

최근 발굴된 나주 당가유적과 촌곡리 유적에서는 다양한 측면몸돌이 출토되었다(이헌종.노선호.이혜연 2004). 약 40,000~30,000년전으로 편년되는 나주 당가유적[3]의 제3문화층과 촌곡리 유적의 구석기문화층에서는 크게 세 부류의 측면몸돌이 확인되었는데 그 몸돌분류는 아래와 같이 세 군으로 나눌 수 있다.

A군. 특별한 성형없이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하는 측면몸돌(그림 3:④). 이 몸돌군은 긴 자갈의 긴 자연타격면을 활용하여 한쪽 좁은 측면에 수직 혹은 약간의 대각선 박리를 통해 격지 혹은 돌날격지를 떼어내는 몸돌들을 말한다. 이 몸돌들 가운데 마치 돌날몸돌에서 crested blade를 떼어내듯이 손질되지 않은 각진 한쪽 자연 모서리를 우선 박리하는 양상의 몸돌도 확인되었다(그림 3:②).

B군. 하단부 조정 격지나 파편을 활용하여 일정한 쐐기형을 유지하도록 하단부가 날카로운 상태로 보존되거나 부분적인 조정을 가한 몸돌(그림 3:①·③·⑥). 이 몸돌군은 크기는 크지만 마치 세형몸돌에서 보여지는 박리 체계를 갖고 있다. 이 두 유적에서 발견된 이 측면몸돌

3) 나주 당가유적의 제2문화층에서는 많은 양의 목탄이 확인되었으며 이곳에서 목탄에 대한 절대연대(C-14) 측정결과 44,710±1,150 B.P. (GX-28665-AMS), 45,380±1,250 B.P.(GX-28666-AMS)를 얻었다.

들은 모두 타격면 조정없이 자연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였다. 작업면 상에 돌날에 가까운 1차 생산물들이 떼어진 박리흔이 잘 남아있다. 특히 하단부에 조정타격을 한 전형적인 쐐기형 측면몸돌도 함께 출토되었다(그림 3:⑥)

C군. 새로운 석재를 활용하여 수직 혹은 약간의 대각선 박리를 통해 돌날을 떼어내는 몸돌(그림 3:⑤·⑦). 이 몸돌군은 규장암, 각섬암 등과 같은 새로운 석재를 활용하여 좁고 긴 박리면을 타격면으로 활용하여 전형적인 돌날을 떼어낸 몸돌들이다. 이 두 몸돌 모두 이미 앞서 설명한 것처럼 crested blade를 떼어내듯이 한쪽 모서리를 박리하는 양상을 보인다.

촌곡리유적에서는 이러한 단일타격면 단일작업면 뿐 아니라 단일타격면에 두 작업면(그림 4:①) 두작업면 단일타격면(그림4:②)의 몸돌도 함께 나와 돌날을 떼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그밖에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이면서도 이러한 몸돌들이 확인되는 유적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소로리 유적이 있다(이융조·우종윤 편 2000). 이 유적에서는 소형 파편을 활용하여 긴 타격면의 한쪽 가장자리에서 대각선 박리를 통해 소형 돌날이 떼어진 박리흔이 보이는 측면몸돌(그림 5:①)과 정연한 돌날을 떼어낸 측면몸돌(그림 5:③)이 있다. 그 중 한 점의 석기는 밀개로 소개되었지만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측면몸돌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그림 5:②). 이 유적의 측면몸돌의 경우 타격면이 조성된 것이 출토되어 주목된다.

30-25ka의 네 절대연대가 나온 정장리유적에서도 여러 형태의 몸돌 가운데 측면몸돌이 출토되었다. 특히 Ⅲ지구에서는 석기제작소가 확인되었는데 찍개, 여러면석기, 부정형의 주먹도끼 뿐 아니라 돌날, 다량의 접합유물, 슴베찌르개, 가파른 날긁개 등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함께 출토된다(경남발전연구원 2002; 2004 근간).

측면몸돌은 돌날석기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고례리유적에서 7 형식의 다양한 돌날몸돌군이 분류되었다. Ⅰ F형(측면이용 돌날몸돌)의 타격면은 박리하고자 하는 부위에만 조정하였다(장용준 2001:44-49). 물론 셀렘자유적의 예를 들어 본다면 이러한 측면몸돌은 세형돌날문화기에서도 연속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후기구석기시대에 접어들어 대체로 40,000-30,000년전부터 측면몸돌이 종장지향적인 1차생산물을 떼어내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후기구석기시대의 늦은 시기에까지 부분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 가운데 30ka를 이후의 유적의 경우 보다 많은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출토되며 그 가운데 타격면조성을 하는 등의 측면몸돌의 기술적 측면도 변화하게 된다. 물론 전형적인 돌날몸돌이 출토되는 고례리유적에서도 돌날몸돌 성형과 박리체계의 하나로 이 측면몸돌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Ⅳ. 측면몸돌, 돌날몸돌 그리고 기술형태적 맥락

우리나라에서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측면몸돌들은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돌날 혹은 돌날 격지를 떼어내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였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측면몸돌은 문화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후기구석기시대를 설정할 때 유럽중심적 사고에 근거하여 돌날석기문화의 등장과 연결시켜 보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고(Ikawa-Smith 2002), 돌날기법이 러시아 알타이, 몽골, 중국북부, 한반도로 확산된 돌날기법이 35,000년 전 일본열도로 전달되었다는 전파론적 시각을 보여주는 경향도 있다(松藤 2004). 하지만 이런 거시적 시각을 증명한 다양한 세목들을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아시아의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구석기문화와 돌날석기문화의 기술적 상관관계 뿐 아니라 돌날석기문화의 확산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이 문화가 각 지역 별로 정착하여 갔는지에 대한 필요한 작업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45-40ka의 우리나라의 주변 동북아시아의 구석기시대의 석기문화는 기존의 전통적인 석기문화와 함께 새로운 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에서는 점차 돌날석기문화로의 이행과정을 밟아 가는 여러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알타이의 중기-후기구석기시대의 과도기와 돌날석기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인 까라-봄유적, 우스뜨-까라꼴유적, 데니소바유적, 아누이유적을 비롯하여 자바이칼의 똘바가유적, 극동의 오시노프카유적 등 대표적인 유적들이 확인되고 있다. 일본도 돌날석기문화 이전의 소형 격지석기전통으로부터 점차 돌날석기문화도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 중 八風山 Ⅱ 유적의 경우 35,000-36,000년 전의 절대연대가 확인되었다. 중국의 경우 그동안 돌날석기문화의 한 전형으로 주목받았던 水洞溝 유적 제 2지점으로부터 얻은 8점의 시료에 대한 AMS 연대는 30,000년 전후(Madsen et al. 2001 재인용)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松藤 2001; 2004:114).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초두에는 여전히 자갈돌석기전통의 석기문화가 유지되고 있었다(Lee H.J. 2000, 2003). 동북아시아에서도 돌날석기문화가 전향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도 아니었다(이헌종 · 한창균 · Derevianko · 黃慰文 2003).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의 40,000-25,000년전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에서 측면몸돌의 등장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측면몸돌의 기술적 맥락은 돌날석기전통과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 시기의 유적들에서 이 몸돌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몸돌로부터 생산된 격지나 돌날격지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석기를 제작한 증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 당가와 촌곡리유적에서 나타난 측면몸돌은 한, 두점

만들어지는 우연한 양상은 아니며 기술적인 계통과 그와 연관된 기술적 분화의 결과도 함께 발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수점의 돌날격지, 정교하게 잔손질된 긁개, 뚜루개, 홈날석기 등 격지석기들로 함께 출토되었다. 하지만 이 유적들의 전 석기군의 맥락에서 볼 때 측면몸돌이 기능하고 있는 측면은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이헌종 · 노선호 · 이혜연 2004).

따라서 이러한 후기구석기시대 초엽에 보여지는 석기제작기법의 다양성은 역시 한 측면만 볼 수 없게 한다고 생각된다. 만일 이 측면몸돌이 자생적인 것이라면 그 또한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에서 후기구석기시대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는 총체적인 변화의 한 단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자료로는 이러한 맥락에서 측면몸돌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동북아시아의 주변환경이 점진적으로 돌날석기문화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 새로운 기술과 접촉하는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반도 역시 이러한 주변 석기문화의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석기제작 기법이 갖고 있는 기술적 맥락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측면몸돌 역시 주변의 석기문화의 환경에 부분적으로 적응된 양상일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몸돌 뿐 아니라 돌날기법이 어느 정도 적응된 것으로 보이는 정장리유적이나 소로리유적의 경우 편년 상 일련의 연속성을 함께 보여주기도 한다. 즉 자갈돌석기전통의 비 전형적인 돌날기법이 계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4]. 즉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측면몸돌은 완전한 기술적 맥락을 갖고 있는 돌날기법의 사례는 물론 아니지만 후기구석지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동북아시아에 정착해 가던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인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고례리유적과 진그늘유적의 발견은 동북아시아의 돌날석기문화의 계통성을 밝히는데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고례리 유적에서 확인된 측면몸돌들은 돌날석기제작기법의 한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북아시아 돌날석기문화와의 연계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고례리 유적과 진그늘유적의 연대는 우리나라 구석기연구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돌날석기문화의 계통성을 밝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술적인 맥락에 의해 조성된 환경은 한반도에 거주하고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석기문화가 유입되는 상황에

4) 松藤和人(2001:61-62)은 석인상박편 혹은 종장박편을 가지고 단락적으로 석인기법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돌날기법이 선후 관계를 가지며 연속성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즉 전후 기술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지역의 유사 돌날몸돌들에 대해서는 잘 기능하는 관점이다. 필자도 松藤和人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돌날문화 자생설과 사축첨두기를 통한 중기구석기문화 설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이헌종 2000). 따라서 필자가 이미 이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측면몸돌은 후기구석기시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당시 주변의 문화환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의석인'이 아니다. 한반도에 나타나는 측면몸돌은 시공간적으로 계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궁극적으로 전형적인 돌날몸돌에도 적응된 몸돌이다.

서도 상당한 적응력을 보여왔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형돌날문화가 한반도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는 지역적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주민의 이동과 정착의 중요한 요충지로 자리잡아 갔던 것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문화기는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와 연관이 있다. 이 두 문화기를 통해 전형적인 후기구석기시대의 돌날몸돌과 세형몸돌 그리고 그 생산물과 2차손질한 다양한 석기들이 확인되었다. 크게 돌날문화의 범주로 확인되는 이 후기구석기시대의 일련의 유적들의 발견으로 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 성형과 박리기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문화 맥락적인 연계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자갈돌석기전통의 다층위유적 가운데 후기구석기시대 문화층으로 보고된 유적과 절대연대상 40,000-25,000년 전의 후기구석기시대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측면몸돌은 기술적 측면에서 전형적인 돌날석기문화와의 직 간접적인 접촉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변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측면몸돌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후기구석기시대에 자주 출토되는 대표적인 몸돌 중 하나이다. 이 몸돌은 몸돌의 측면에서 많은 돌날을 떼어내고 재생을 하기에도 용이한 기술적 특징을 갖고 있으며 석재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는 전략적이며 경제적인 몸돌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되는 측면몸돌은 일정한 범주에서 돌날기법과 연관이 있으며 후기구석기시대로 진입하는 단계에 동북아시아에 정착해 가던 돌날석기문화와의 기술적인 교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을 갖고 있던 한반도에 점거하며 살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돌날석기문화와 세형돌날문화가 등장하는 시기마다 적응 해 갈 수 있었을 것이며, 다양한 돌날몸돌을 다룰 때 측면몸돌을 제작하던 기술로 인한 적응력도 높여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후기구석기시대의 이른 단계로 편년 되는 자갈돌석기전통의 유적들에서 이러한 몸돌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은 후기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의 연속성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이며 지역적인 적응의 결과의 하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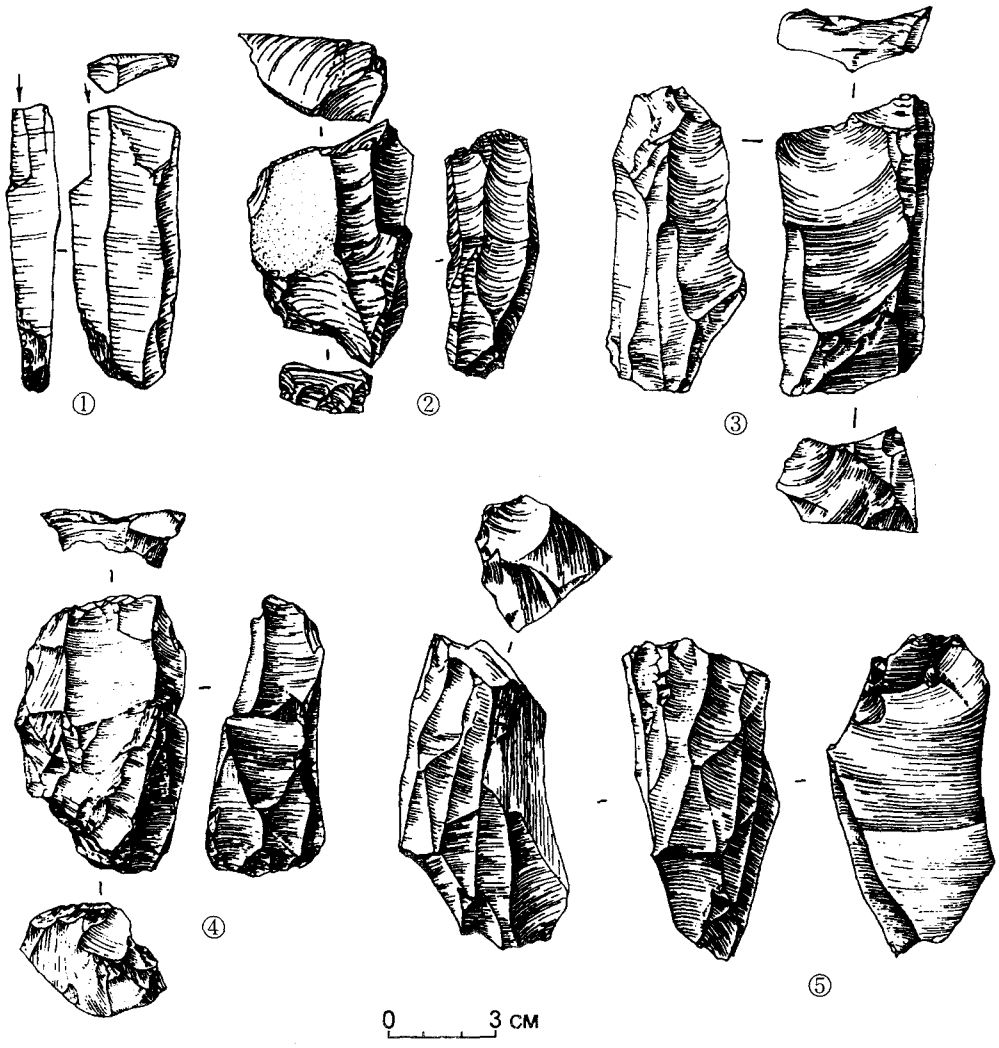

그림 1. 까라 봄(Kara-Bom)유적 석기류 : (① 무스테리안기 제2문화층 새기개, ②·③ 후기구석기6문화층, ④·⑤ 후기구석기 5문화층)(Derevianko *et a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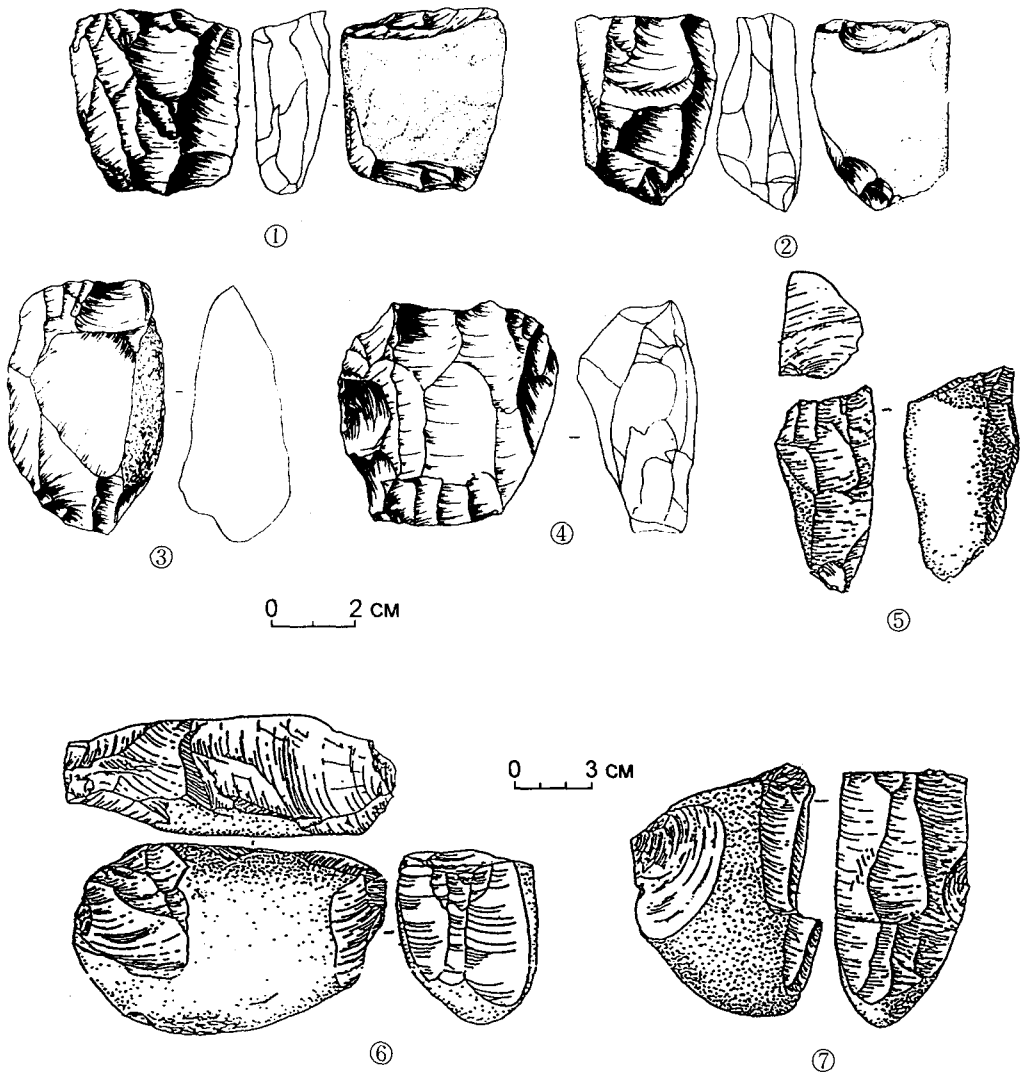

그림 2. 똘바가(Tolbaga)후기구석기유적 : (① · ② 측면몸돌, ③ · ④ 쐐기형측면몸돌), 셀렘자 후기구석기시대유적 : (⑤~⑦ : 측면몸돌)(Derevianko *et al.*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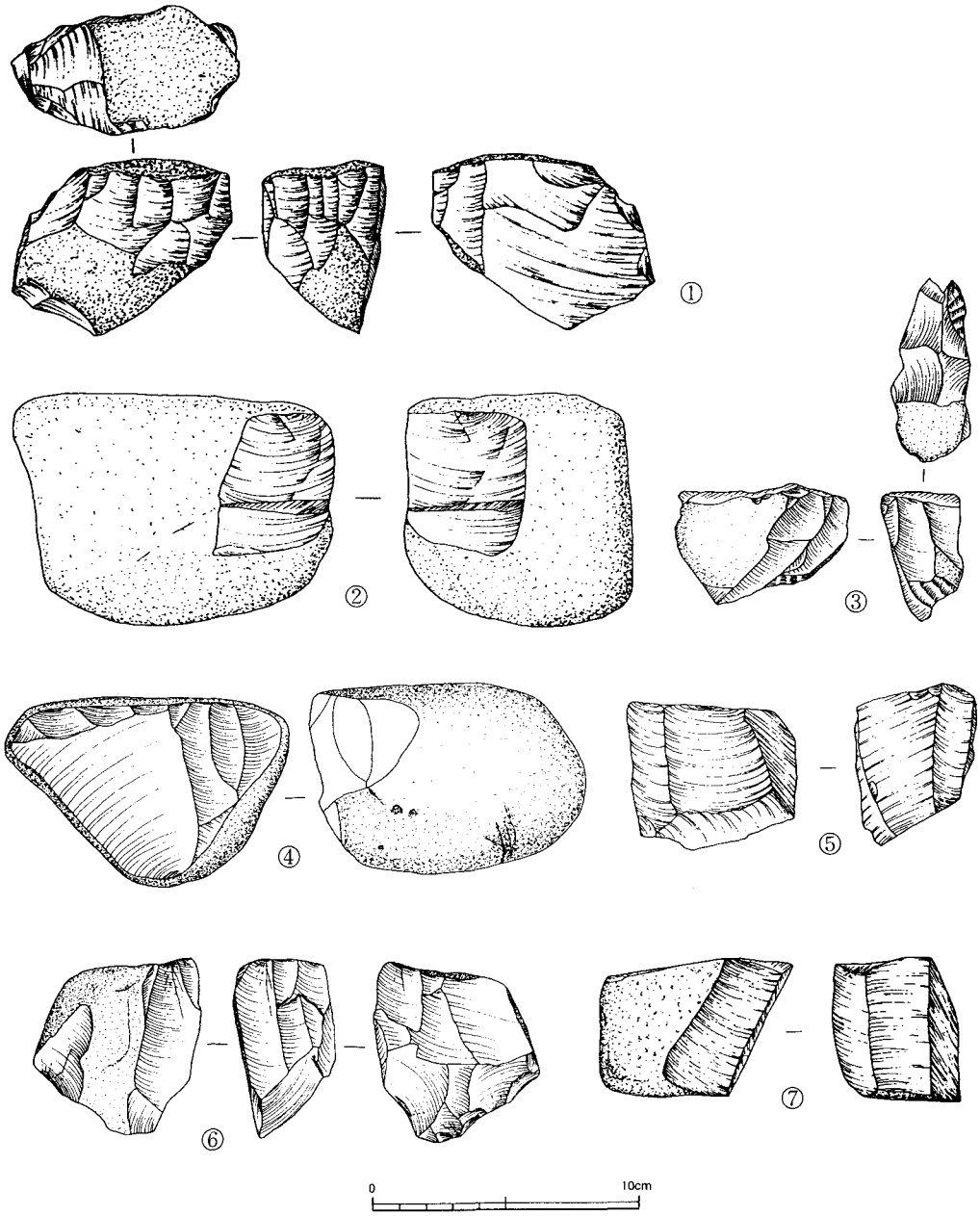

그림 3. ①·② 나주 당가유적 2문화층, ③~⑦ 나주 촌곡리유적(이헌종·노선호·이혜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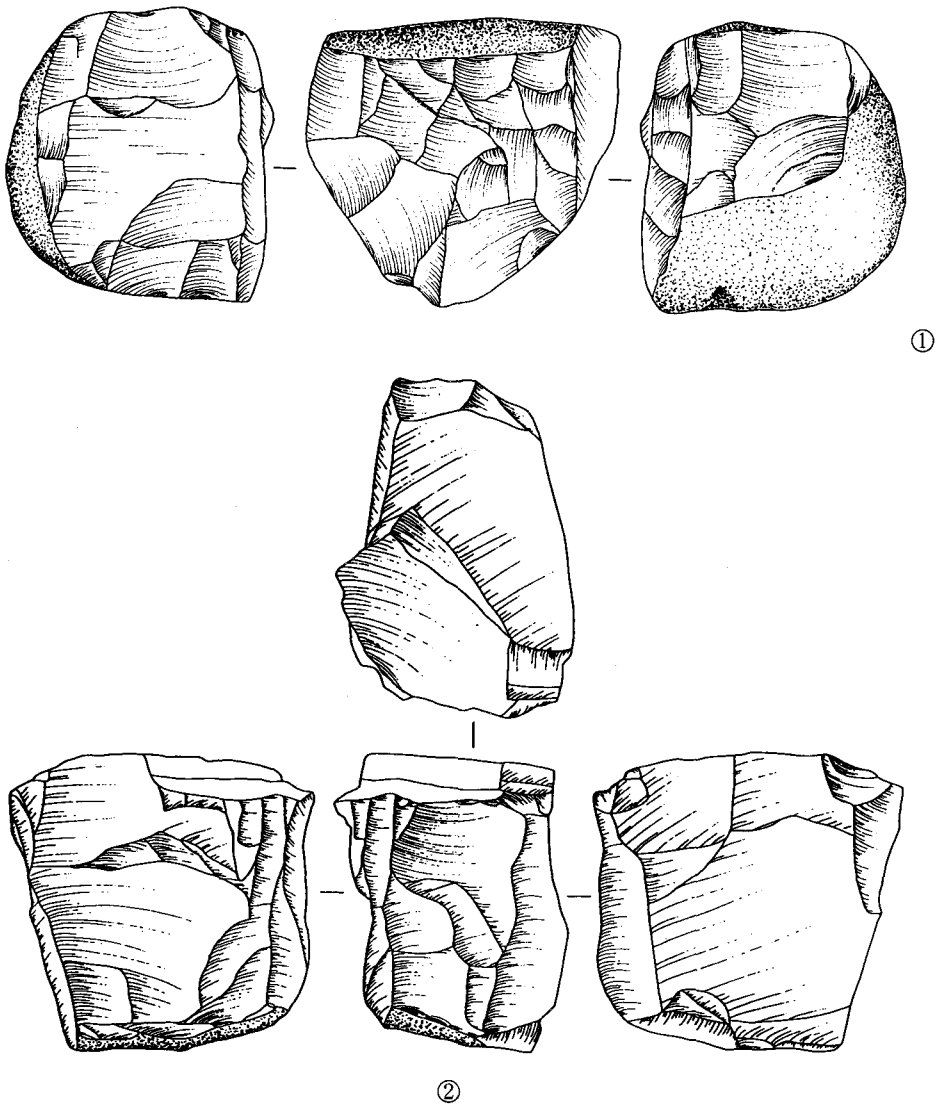

그림 4. 나주 촌곡리유적 ①·②(이헌종·노선호·이혜연,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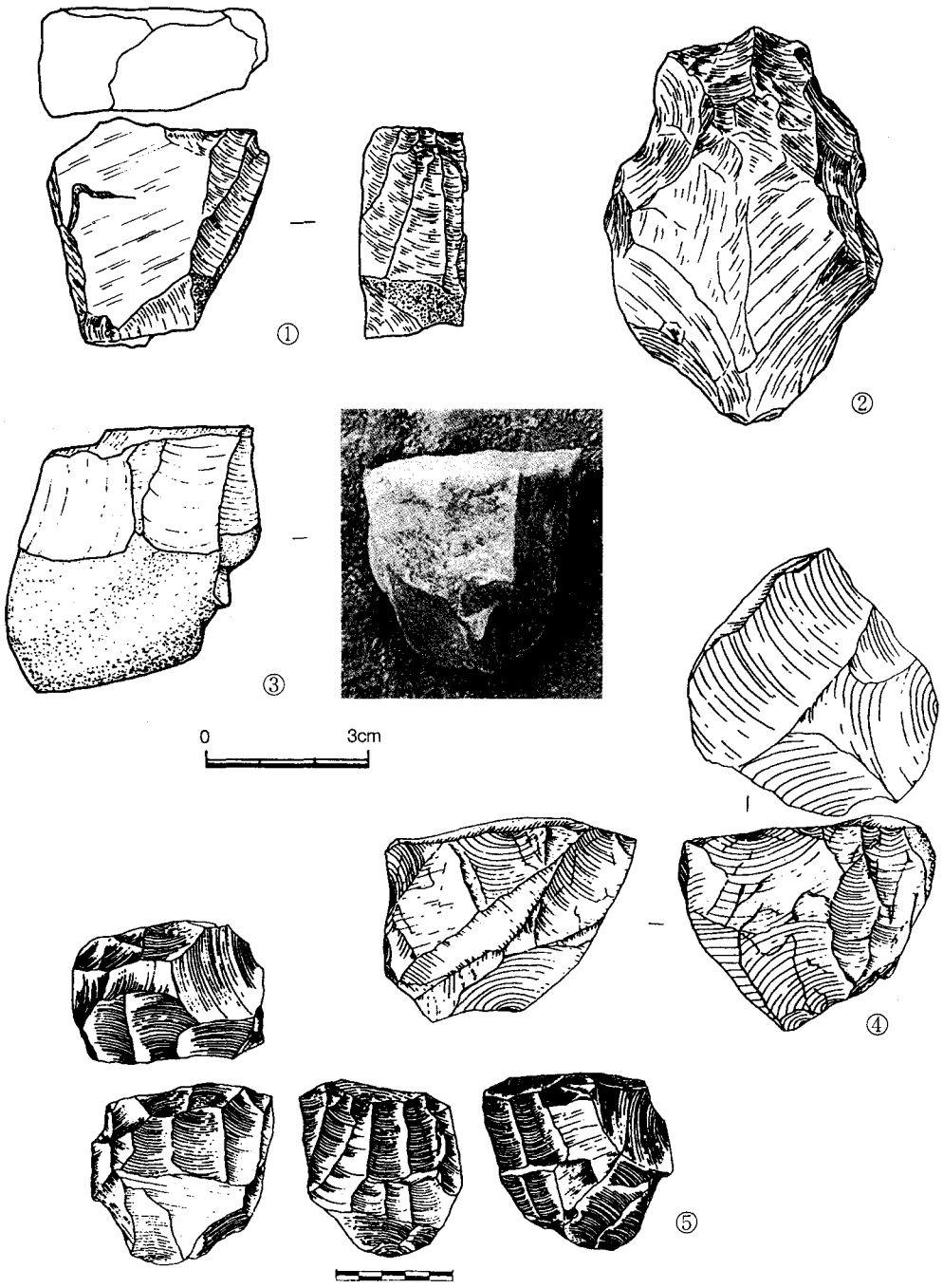

그림 5. 청원 소로리유적 ①~③(이융조 · 우종윤편, 2000), 병산리유적 지표채집 ④(최몽룡 외, 1997), 우산리유적 지표채집 ⑤(Lee. H.J., 1998)

<참고문헌>

경남발전연구원 2002.『거창 정장리유적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집』

경남발전연구원 2004.『거창 정장리 구석기유적』(근간)

김주용・양동윤・홍세선・오근창・김진관・남욱현・이진영・고상모・이윤수・봉필윤・이헌종・윤호필 2003.「황강천 유역 최종빙기 하성퇴적층과 고토양층 형성환경과 시기 고찰」『제33회 한국제4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집』(한국제4기학회)

김주용・이헌종・양동윤 2002.「남한의 구석기유적의 제4기 지층, 형성환경 및 시기 연구」『한국구석기학보』(한국구석기학회) 6.

박성진 1998.「임진-한탄강 지역의 구석기시대 몸돌 분석」『한국구석기학보』(한국구석기학회) 1.

松藤和人 2001.「일본의 구석기문화」『한국구석기학보』(한국구석기학회) 3.

松藤和人 2004.「日本列島に おける 後期舊石器文化の 始原」『日本列島に おける 後期舊石器文化の 始原に 關する 基礎的研究』文部科學省科研費による研究成果報告書.

이융조・우종윤 편 2000.『淸原 小魯里 舊石器遺蹟』(忠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

이헌종 1998.「동북아시아 후기구석기시대의 몸돌에 대한 기술형태학적 분류체계」『古文化』(한국대학박물관협회) 51.

이헌종 1999.「동북아시아후기구석기시대의 기술격지에 대한 연구」『고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54.

이헌종 2000.「동북아시아 중기구석기문화연구」『한국상고사학보』(한국상고사학회) 33.

이헌종 2002.「우리나라 구석기시대 석기제작기법의 변화」『우리나라의 구석기문화』(연세대학교 출판부)

李憲宗, 1997a.「우리나라 후기구석기시대의 석기제작기술의 다양성」『수양개와 그 이웃들』: 第2回 國際學術大會, (丹陽鄕土文化研究會・忠北大學校博物館)

李憲宗, 1997b.「전곡리유적 수습 기술격지의 의미」『한국상고사학보』(한국상고사학회) 25.

이헌종・노선호・이혜연 2004.『나주 당가・촌곡리 구석기유적』(목포대학교박물관)

이헌종・한창균・Derevianko・黃慰文 2003.『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의 자갈돌석기전통에 대한 연구』(학연문화사)

장용준 2001.「後期舊石器 中葉의 剝離技法 研究」『한국구석기학보』(한국구석기학회) 4.

최몽룡・이동영・신숙정・박양진・이헌종 1997.『남한강유역의 선사문화』(서울대학교박물관)

최미노 2001.「죽내리유적 구석기 1문화층의 붙는 석기연구」『한국구석기학보』(한국구석기학회) 3.

황소희 1999.「금파리 석기공작과 전곡리 석기공작의 비교분석」『금파리유적』(국립문화재연구소)

Derevianko A.P, Agadjanian A.K., Baryshnikov G.F., Dergacheva M., Dupal T.A., Malayeva E.M.,Markin S.V., Molodin V., Nikolayev S.V., Orlova L.A., Petrin V.T., Postnov A.V., Ulianov V.A., Fedeneva N., Foronova F., Shunkov M.V. 1998. *Arkheologia, geologia i paleogeografia pleistotsena i golotsena Gomogo Altaia*(산지 알타이의 갱신세와 전신세의 고고학, 지질학, 고지리학). (Novosibirsk, lzd, IAE SO RAN)

Derevianko A.P. 1994. Fromation and Development of Microblade Industry in Southeastern Part of Far East. *The Origin and Dispersal of the Microblade Technique in Northern Eurasia.* (Sapporo)

Hirth K.G. edited. 2004. *Mesoamerican Lithic Technology.* (The University of Utha Press)

Ikawa-Smith F. 2002. The Late Palaeolithic of East Asia : An Overview『수양개와 그 이웃들』: 第7回 國際學術大會, (丹陽郡・丹陽鄕土文化硏究會・忠北大學校博物館)

Inizan M.-L., H. Roche, J. Tixier 1992. *Technology of Kanpped Stone.* (Meudon:CREP)

Lee Heon-jong 1998. New Understanding of Pebble Tool Tradition in Korean Peninsula.*Paleoecologia Pleistotsena i Kul' tury Kamennogo Veka Severnoi Azii i Sopredel' nykh Territorii Tom 2.* (IAE press)

Lee Heon-jong 2001. Middle Paleolithic Studies on the Korean Peninsula. *Archaeology, Ethnology and Anthropology of Eurasia, N2(10).* (IAE Press)

Lee Heon-jong 2003. The Middle to Upper Paleolithic Transition and the Tradition of Flake Tool Manufacturing on the Korean Peninsula. *Archaeology, Ethnology and Anthropology of Eurasia, N1(13).* (IAE Press)

Madsen, D.B., Li Jingzen, Brantingham, P.J., Gao Xing,, Elston, R.G. and Bettinger, R.L. 2001. Dating Shuidonggou and the Upper Palaeolithic blade industry in North China. *Antiquity, 75(290)*; 706-716.

Odell G.H. 2003. *Lithic Analysis.* (Kluwer Academic・Plenum Publishers)

Petrin B.T. 1994. The origin of the Microlithic Tradition in the Altai - butt cores and Burins in the Kara-Bom Site. *The Origin and Dispersal of the Microblade Technique in Northern Eurasia.* (Sapporo)

A Study of Technological Context Between Sub-wedge Shaped Core and Blade Tool Culture of Upper Paleolithic in Korea

Lee Heon-jong

The most typical period of Upper Paleolithic age in Korea is related with a blade tool culture and a microblade culture. Recently, we can figure out that there were a typical blade tool culture of Korea by being discovered to Goreari site and Jingnel site.

The microblade blade culture was the model of the Asian microlism, started 25,000 years ago in Northeastern Asia. This culture made an opportunity to unify the Paleolithic culture of Northeastern Asia, and also was a representative period spreaded in all of Korea. These set of the Upper Paleolithic age relics was highly related with a blade technique. We need to verify the culture contextual relationship in a technical side like the core shaping and the flaking technique of the Upper Paleolithic age in Korea. There is the relics reported as the cultural layer of Upper Paleolithic age among the multi-layered site of pebble tool tradition. The sub-wedged shaped core was found in the relics of Upper Paleolithic age from 40,000 to 25,000 years ago on an absolute date. These explain the various culture change shown in the process of cultural contact with the typical blade tool culture on the technical side. This shaped core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re that was often excavated in Siberia and Far East of Upper Paleolithic. The sub-wedged shaped core had a technical feature that was useful of rejuvenating by keeping many blade tool from their side part. The core was also the strategic core comparatively less the restriction of stone material than others. This study considers that sub-wedged shaped core from Korea was related with a blade technique, and showed us the one side of the technical exchange among the blade tool culture that had settled down in Northeastern Asia on the step of the entry into Upper Paleolithic. The paleolithic people who lived in Korea which had these technical basis could be able to adapt themselves to the cultures whenever the blade tool culture and the microblade culture appeared, and raise their adaptation caused by making technique to the sub-wedged shaped core when they handled various blade shaped core. Especially, this core appeared with the relics of Pebble Tool tradition which was chronologically recorded as the early step of Upper Paleolithic age in Korea. This fact is another proofs on the sequence of the Pebble Tool tradition in Upper Paleolithic age, and also considered as the result from the regional adaptation.

[key word] Upper Paleolithic, Sub-wedge Shaped Core, Blade Tool Culture, Pebble tools Tradition, Technological Context